

“우울증 조기발견 하면 자살 줄어”

생명나눔,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자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병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활동이 필요하다.” (최희현 원장 연세로템 정신건강의학과)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순간을 잘 이해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잘들어주며 함께 견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이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위기상담특별위원장)

“자살을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야 한다”(이영의 강원대 철학과 교수)

“자살은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위기 측정 방법은 없다”(하상훈 한국 생명학의 전학 회장)

7월 4일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 자살자는 1만 556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인 153명이 증가했다.

이런 시기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전문적 차원에서 생명나눔자살예방센터를 2011년 6월 1일 개원하고 설립 1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의 강원대 교수, 유영권 연세대 교수, 강이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위기상담 특별위원장, 하상훈 생명학의 전학 회장

중장년층 우울증 환자 가장 많아 자살시도 이유·의미 먼저 살펴야 가족들 고통 잘 들어주고 이해 필요

이사장 일면 스님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려면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앓는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앓아 힘들었던 적이 있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범인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고통 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살의 정신의학적 측면을 발표한 최희현 의장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병세가 호전돼 가족들이 안심할 때 자살시도 확률이 높다”며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한 첫 주간에 자살위험이 높고, 퇴원 후 6개월 내 자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자살로 생을 마친 10명 중 4~8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증 환자 중 10명 중 2명은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증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에 따르면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인자로는 △남자 △노령 △독신 △이혼 △혼자 사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최 의장은 “그러나 자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병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위기의 심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강이영 위원장은 “자살은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한 양가적인 감정”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망설인다”고 말했다. 실

제 자살 의도 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강 위원장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순간을 잘 이해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잘 들어주며 함께 견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의 교수는 “자살예방 치료를 위한 철학모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철학치료는 자살 위기자 스스로 주체적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자살을 원인과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확인했을 때 자살이 그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인지 반박한 후 함께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상훈 원장은 ‘자살위험 평가 및 개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원장은 자살 위험 평가의 6가지 기준으로 △자살의도 △최근 자살계획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이전 자살시도 △정신건강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하 원장은 자살위기자를 돕는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정교신호 점검하기 △자살자와 접촉하기 △자살자에 대해 질문하기 △준중독기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6월 설립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환위기상담 △인터넷 사이버상담(비공개, 이메일) △면접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청소년 및 성인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02)735-1010 이나은 기자 oasis1983@nyunbu.com

“복지법인 산하시설 업무 효율 기대”

조계종 복지재단·하나은행 협약 체결



하나은행 김중준 은행장(오른쪽서 네번째) 및 임직원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맺고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이 나눔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3일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하나은행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재단은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과 단체의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사무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현주 부행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불교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복지정보시스템의 프로세스 혁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은 양측의 금융관리·정보기술·사회복지 노하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홈페이지·그룹웨어·후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승 스님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선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강화 △투명한 기관 운영 △행정 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일조할 이번 협약이 불교사회복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약식을 마친 뒤 하나은행 김중준 은행장, 이현주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는 뒤 선물을 교환했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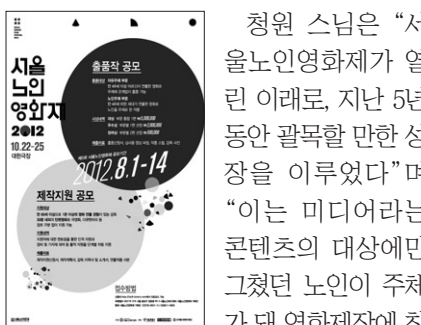
201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 공모전

시상금 1100만원 규모... 지난해보다 1.5배 늘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서울노인영화제에 앞서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공모전’을 연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 공모전은 출품작 공모와 제작지원공모로 진행된다. 출품작 공모는 만 60세 이상의 감독의 자유주제 부문과 만 60세 미만 감독의 노인주제 부문으로 구분되며, 30분 내외의 장편영상으로 장르에 관계없이 출품 가능하다. 상금규모는 총1100만원이다.

제작지원사업은 노인감독의 활발한 영상제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우선 영화제작기획서를 공모해 선정된 뒤 영상제작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지원과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물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감독으로 순제작비 300만원 미만의 단편영화 제작에 한 한다.



청원 스님은 “서울노인영화제가 열린 이래로, 지난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며 “이는 미디어라는 콘텐츠의 대상에만 그쳤던 노인이 주체가 돼 영화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위상이 그간 상당히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도 세대 간의 따뜻한 공감이 있는 서울노인영화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인영화제 공모기간은 8월 1~14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http://sisff.tistory.com)를 참조하면 된다. (02)6911-9500 이나은 기자

앨범 발매 기념 캄보디아 우물지원

백정강 팬들, 위드아시아에 후원금 지원

가수 백정강이 첫 앨범 발매를 기념해 캄보디아 빈곤지역에 기부해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백정강의 팬들이 후원금을 모아 국제구호 NGO단체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에 기부해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 2개가 완공된 것.

이에 앞서 백정강의 팬들은 올 초 3월에 백정강의 생일을 맞아 캄보디아 빈곤지역에 마을 공동화장실과 우물을 지었다.

지원 스님은 “기부된 우물은 마을에서 자체 관리인을 선출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 할 예정이며, 우물 한 개당 20~30여 가구(80명~100여명)가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부로 마을에 우물이 전혀 없어 식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긴기에는 우물의 물을 이용해 밭농사에 유용히 쓰여 주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드아시아는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빈곤·소외계층을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으로 2011년 2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로 명칭변경을 승인받았다.



백정강 팬들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우물을 짓게 된 캄보디아 주민들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구호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각 나라 절대 빈곤 지역 마을에 화장실, 우물설치와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원복2세 환우 심터민 합천평화의 집과 연계하여 원복피해자 및 2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051)322-7902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징계공고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법에 의거 아래 3인을 체탈도첩에 처합니다.

성명	법명	주소	적용법령	위반사항
안중명	상천	부산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금수사	규정원법제4장16조	1,2,3,4항
김상배	상목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67-3번지 고왕사	규정원법제4장16조	1,2,4항
손영채	우석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울산사무소 총무부장	규정원법제4장16조	1,4항

규정원법 제4장 16조

1항 :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가 있는 자.
 2항 :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 자.
 3항 : 교의에 대하여 이단설을 주장하고 전교를 모략한 자.
 4항 :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꾀하는 자.

2012년 6월 28일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임우섭 (성암)